

“국악 즐기려면 많이 듣고 쉬워야... 대중화 힘쓸 것”

국악계의 '싸이' 소리꾼 남상일



충북 단양군에서 열린 '우리기락 우리마당' 공연(2015년 5월) <사진=남상일 제공>

“국악은 신난다!” 젊은 소리꾼 남상일은 힘주어 말한다. 그는 빼어난 소리는 물론 재치있는 입담과 끼, 타고난 예능감을 겸비해 ‘국악계의 싸이’, ‘국악계의 아이돌’이라는 애칭

“결국은 편견이죠. ‘국악은 국악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국악다운 게 뭐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국악은 어렵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편견을 먼저 가지고 접근을 하게 돼요.”

소리꾼 남상일(40)은 국악 대중화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편견’을 꼽았다. 대중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악이 귀에 안 들어와’ 즐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국악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이나 의무감으로 듣고, 즐기는 시대는 아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사명감이나 의무감으로라도 들어야 돼요. 내가 싫다고 해도 내 부모는

어나 결길로 나간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정통 판소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 우리 소리가 주(主)가 되는 창극과 21세기 국악의 미래를 모색하는 ‘우리창극 연구회’ 회장과 전통음악을 연구하고 연주하는 민속악회 ‘수리’ 대표 겸 음악감독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시대상을 반영해 청년층의 애환을 해석적으로 다룬 창작 판소리 ‘노총각 거시기’ (2003년)를 작창(作唱)하기도 했다.

그는 조소녀(전북도 무형문화재 2호 춘향가 예능보유자) 명창과 안숙선(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병창 보유자) 명창에게 사사(師事)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했다. 조 명창에게 초등시절에 ‘심청가’와 ‘춘향가’를, 안 명창에게

“국악은 신난다!” 젊은 소리꾼 남상일은 힘주어 말한다. 그는 빼어난 소리는 물론 재치있는 입담과 끼, 타고난 예능감을 겸비해 ‘국악계의 싸이’, ‘국악계의 아이돌’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전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악 대중화를 위해 바쁘게 뛰는 그를 최근 서울 남산 카페에서 만나 판소리와 국악에 대해 들었다.

많은 10살 때(1988년) 남원 춘향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학생부 장원과 KBS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 장원 등 굵직한 대회에서 입상하며 자연스레 ‘국악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전주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통예술원에 입학한 때는 1998년. 훌륭한 스승의 지도와 함께 이론을 겸비하며 재능을 맘껏 꽃피울 수 있었다.

지난 2003년 한예종 졸업과 동시에 국립창극단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했다. 창극단에서 ‘적벽가’의 조조, ‘심청가’의 심봉사 등 판소리 다섯 바탕 창극 남자주인공으로 활약했다. 2011년에는 국립극장 기획공연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자신의 이름을 딴 버라이어티 쇼 ‘남상일 100분 쇼’ 무대를 가져 호평을 받았다. KBS2 TV ‘시사난타’에 출연해 판소리로 시사적인 문제를 풍자해 이목을 끌었다.

국립창극단에서 10여 년간 활동하던 그는 2013년 3월에 국악대중화를 꿈꾸며 창극단을 나와 자신의 길을 걷는다. 국악대중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며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인상(2012년), 문체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전통예술 부문(2013년)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쁜 활동 중에도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 진학해 음악학 석사를 취득했다.

소리꾼 남상일의 성공 뒤에는 부모가 있었다. 어머니 이명순(65)씨는 어릴 때부터 돈을 아끼지 않고 음반을 사주고 공연 관람을 시켰고, 아들의 판소리 공부에 동행하는 등 헌신했다. 지난 2015년 어버이날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했다.

판소리 무대는 물론 TV 예능 프로그램, 특강 등 그를 찾는 곳이 많다. 그가 이렇게 흥행무진 뛰어다니는 이유는 ‘국악 대중화’를 위해서다. 전통음악과 대중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꿈꾼다. “국악이 ‘국악인을 위한 국악’이 되면 안 돼요. ‘미디어를 위한 음악’이 돼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국악을) 많이 들어야 되고, (국악을) 즐기려면 편하고, 쉬워야 돼요.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고, 한국의 정서와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담고 있는 최고의 음악인데 (대중들이) 맛을 못 보니까 몰라요. 대중과 전통음악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야 되잖아요. 저를 많이 밟고 다니면서 전통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가교(架橋)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남원 춘향제·KBS 판소리 경연대회 장원

10살때 ‘국악 신동’으로 이름 날려

국악은 우리음악이자 현장음악

국악계 스타 꾸준히 나와야 각광받고 발전

판소리 무대·TV 예능·특강 등 동분서주

대중과 전통음악 이어주는 가교 역할 할 것

내 부모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음악이지 만 국악은 우리 음악입니다. 국악은 현장 음악입니다.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듣게 되면 맛이 걸려져요. 그래서 ‘직접 공연장에서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일찍부터 국악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정통 판소리 무대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뿐만 아니라 ‘노총각 거시기(歌)’와 같은 창작 판소리를 부르며, TV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국악의 색다른 맛과 신명을 전달하려 했다. 재기발랄한 입담과 타고난 예능감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는 ‘국악계의 아이돌’, ‘국악계의 싸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국악계에서 ‘스타’가 꾸준히 나와야 국악이 각광받고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KBS ‘불후의 명곡’과 MBC ‘복면가왕’ 등에 출연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와 태진어의 ‘사모곡’, 최백호의 ‘남만에 대하여’를 판소리 스타일로 편곡해 불러 갈채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TV를 통해 보여지는 그의 활동을 오해하기도 한다. 정통 국악을 벗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하며 ‘수궁가’와 ‘적벽가’를 익혔다.

“전주에 계시는 조소녀 선생님은 소리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소리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조 선생님이 길을 잘 열어주셨다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은 안숙선 선생님이시죠. 항상 선생님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그는 1978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3-4살 때 그렇게 울다가도 TV 판소리를 들으면 신동하게 울음을 뚝 그치고 따라서 흥얼거렸었다. 말보라도 소리를 먼저 배운 셈이다. 이러한 모습을 유심히 지켜 본 아버지 남창희(2007년 작고) 씨가 어린 아들의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편지 글과 함께 조상헌 명창에게 보냈다. 이후 조 명창이 판소리 한 대목을 녹음해 보내 오면 아기가 따라 부르고 이를 다시 녹음해 조 명창에게 보내는 ‘통신교육’이 2-3년간 반복됐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이명순) 손을 잡고 조소녀 명창을 찾아갔다. 학교가 끝나면 조 명창에게 ‘심청가’와 ‘춘향가’를 익혔다. 판소리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溫故知新 문화재 재발견

광주·목포·군산 등

10~11월 ‘야행’ 프로그램

궁궐과 서원, 향교와 같은 문화재가 대중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다채로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과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경복궁 별빛야행’과 ‘창덕궁 달빛야행’은 궁궐의 색다른 맛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한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6일부터 20일(화요일 제외)까지 오후 6시 30분과 7시 40분 두차례(회당 60명) 입장한다.

또 ‘창덕궁 달빛야행’은 28일까지 매주 목·토요일에 하루 2회(오후 7, 8시 입장·회당 100명) 진행된다. 일요일은 외국인 대상으로 3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해설을 한다. 매회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학자 고봉 기대승(1527~1572) 선생을 배향하는 월봉서원을 비롯해 무양서원, 용아 박용철 생가, 장덕동 근대한옥, 김봉호 가옥 등 관내에 자리한 여러 문화재를 이용해 다채로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10~11월에도 월봉서원에서 ▲월봉유랑(10월 6일) ▲월봉 로맨스(6일) ▲살롱 드 월봉(25일·11월 29일)이 열리며, 장덕동 근대한옥에서 ▲야호(夜好)! 달빛 소나타(27일) ▲한옥 음악회(6일, 11월 3일)가 개최된다.

또한 김봉호 가옥에서 ‘농가의 사계’(13일), 용아 박용철 생가에서 ‘시인의 사계’(10일, 11월 14일)가 마련된다.

백제시대 왕궁 유적과 일제 강점기 근대 문화재를 배경으로 열리는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목포시는 26~27일 원도심 일원에서, 여수는 20일 진남관 등 전라좌수영 일원에서 야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전북 군산시는 13~14일 근대역사박물관과 월명동 일원에서, 익산시는 5~6일 왕궁리 유적 일원에서, 고창군은 같은 날 고창읍성 일원에서 각각 문화재를 탐방하며 공연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갖는다.

야행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문화재청(www.cha.go.kr) 홈페이지 내 ‘문화유산 유유자적’에서 광주·전남 등 각 지역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사정상 급매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보 1천만, 월50만원 임대보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1868㎡ 찻집동적합 1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농성초간리엔 월산동 소방도점 대지 129㎡ 주택 66㎡ 은행5천.1억4천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점 대지 149㎡ 2중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중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원천저수지부근 2억7천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4861㎡ 공장·창고 적합 5억6600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월산동 양면도로점 주거지 873㎡ 창고와 사무실 11억
- 무안 해제면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신고 3억5천 매도 3억
- 영광 흥농읍 주거지 5223㎡ 공시지가 6700 매도 8500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 금남로5가역 대신증권부근 대로점 상업지 364㎡ 사육도적합 16억

상가건물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화정동 대원아파트 단지 병원적합 땅 258㎡ 5층 새건물 매 34억
- 쌍촌동 원룸, 투룸 15실과 안집(주인거주) 월세 460. 12억5천
- 용봉동 고시텔 땅 357㎡ 건평 829㎡ 45실 은행5억 교환가 9억
- 고흥 나로도인근 팬션 땅 6891㎡ 건평 267㎡ 객실10, 은행3억, 7억5천
- 여관 목포시 옥암동 땅 439㎡ 건물 989㎡ 객실26 은행 4억 매도 7천만
- 북동 토지 538㎡ 건물 1933㎡ 은행 9억2천 매도 1억 6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팬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적합 3억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